

정의구현운동의 시대적 배경



함 세 응

*함세응 신부님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자 고 김승훈 신부님 등과 함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조직, 구속자들의 석방 및 천주교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1976년 3·1명동성당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제기동 성당의 주임신부로 있다.

교회를 눈뜨게 한 귀중한 체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주년 기념회의에서 7, 80년대 그 증언의 삶을 자료집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20년 전 숨가쁘게 뛰었던 그 시절에는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시간 낭비며 하나의 사치로 생각되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자료를 지니고 있는 그 자체가 긴급조치 위반이며 감옥에 잡혀갈 사안이었기에 기도회의 자료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하루 스물 네 시간 내내 감시, 도청, 미행, 감금 그리고 수시로 연행, 납치, 가택수색을 통해 압수당했던 터였음으로 자료의 수집이란 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료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다행히 많은 부분이 빛을 보게 되었다.

구사일생의 체험은 귀중하다. 이 자료집에는 그러한 감격이 스며 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하노라면 스스로 자못 뿌듯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쉽고 부끄러운 일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험의 삶을 우리는 후학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역사란 결국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미래를 위해 분명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스승이며 길잡이가 아닌가.

더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역사란 바로 하느님의 섭리이며, 그 결집이 바로 성서이기에 참으로 전승의 귀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성서 작가들에게 있어서 일차적 책무는 신앙의 체험과 함

께 그 체험의 기록들을 모으는 일이었다. 자료가 풍부할수록 체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1970년대 현장에서 뛰었던 당시의 우리에게도 자료란 별 의미가 없었다. 우리의 삶, 그 상황이 바로 원(原)자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오늘 그 생생한 삶과 체험은 과거 속에 묻혀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이며 꼭두각시였던 비굴한 언론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활자들만이 살아 남아 있다. 그 활자들을 기초로 상훈(商魂)만이 춤추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간혹 뜻있는 후학들의 진지한 접근을 만나게 되면 힘과 희망을 얻는다. 이 자료집은 이들에게 바로 과거의 삶을 생생하게 실감케 하는 살아 있는 열이며 실제적 사실에 접근케 하는 정신이 되리라 믿는다.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기록 이상의 것이며 재생의 계기이며 자극제가 될 것이다.

비록 그 당시의 현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료집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실재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는 미사와 상통된 성사(聖事)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안에 충만한 하느님의 기운이 사실 역사 한가운데 더욱 분명히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의 하느님을 고백하는 참 신앙인의 자세라 생각한다.

그 시절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 함께하심을 뒤늦게 깨닫고 하느님의 섭리를 노래하며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겁없

이 뛰어들었다.

물론 이것은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제들은 소박한 마음으로 지 주교의 구속을 가슴 아파했고,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민청학련 사건에 관해 분노만 느꼈을 뿐 그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지 주교의 문제와 학생들의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재판기록을 읽고 가족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긴급조치의 허구성과 유신체제의 모순성을 극명하며 알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앞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고,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본질, 권력구조의 생성과정, 안보라는 기만적 논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적 소명과 그 예언직을 깊이 연구하고 체득하게 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가톨릭계와 권력 당국과의 마찰은 있었다. 이미 1967, 8년도의 강화도 심도직물사건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이 당국의 모함으로 용공·좌경으로 매도당하기도 했고, 71년에는 원주 MBC의 주식과 그 할당 배분문제로 원주교구가 권력과 밀착된 구조적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최초로 시위를 감행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일부 국지적 사회문제로 취급되어 곧 봉합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은 국내외에 큰 파문을 가져왔다. 정부에서는 지 주교 개인의 반정부 활동 자금지원 문제라며 적당한 차원에서 처리하려고도 했으나, 지 주교가 양심선언을 통해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대해 근원적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정부 자체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 주교를 구속하여 재판에 회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하느님 섭리의 손길로 해석하게 된다.

사실 당시 한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지만, 피상적으로만 접근했을 뿐 세계 교회의 물결에 함께 하지 못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던 터였다.

지 주교의 구속사건으로 전개된 기도회와 세미나 또는 피정모임에서 우리는 사제적 신원, 신앙인의 자세와 그 사회적 소명 등을 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서를 새롭게 읽었으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었고, 공의회의 기본정신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깨달았다. 특히 사목현장의 가르침 안에 이미 우리가 제기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의 해답이 모두 실려 있음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가르침을 성당이나 강단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 고민하고 울부짖으며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무서운 억압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터득했다. 참으로 귀중한 현장 체험이었다. 사목현장의 가르침은 바로 한국의 현실을 모형으로 하여 이룩된 것이라 생각되었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다.

지학순 주교를 위한 석방운동은 출애굽의 해방을 실감있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었으며, 나아가 예수의 재판이 지닌 정치적 배경을 고찰케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즈음에 전해진 해방신학의 가르침이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튼튼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지 주교의 사건은 한 사람의 구속과 그에 따른 석방운동만이 아닌 참으로 모든 사제, 수도자, 교우들의 눈을 뜨게 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교훈적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폭력성에 맞서

1970년대는 참으로 암울했다. 1972년의 유신정변은 당시 남북한 정권 당사자간에 진행되던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건이다. 즉, 민족문제를 정권의 강화와 유지를 위한 수단과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박정희는 남북한간의 '대화 있는 대결'을 위하여 국력의 효율화와 조직화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절대화가 요청된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동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신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저의는 1인 권력의 영구화와 절대화를 위한 것이었다. 유신정변의 단행이 오히려 남북대화의 단절을 가져왔음이 그 방증이다.

유신헌법은 7천명 안팎의 전국 면·동단위에서 뽑혀 올라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했다. 이는 이제까지의 대통령 직접선거를 뒤엎는 간접선거였다. 대의원은 정당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관권에 의한 선거를 제도화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법관도 임명하도록 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을 완전히 대통령이 장악하여, 행정뿐만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고 없애고 뜯어 고치는 것

도, 세금을 매기고 돈을 찍어 내는 것도, 사람을 잡아넣고 죽이고 살리는 것도 오직 대통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모든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었으며, 국민에게는 오직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대통령은 그 어느 누구의 견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긴급조치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 긴급조치란 그나마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도 제멋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그야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무한 권력이었다.

유신헌법 제10조에는 그 이전의 헌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안처분’이란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권력이 제멋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제수용에 가둘 수 있는, 실로 가공할 인권탄압 조항이었다.

이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구시대 유물로서 나치 독일이나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제 치하에서나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다시 1970년대에 한국의 유신헌법에 유령처럼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의 보안처분권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사회안전법에 의하면 해방 이래의 거의 모든 정치와 사상범의 전과자가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 이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부는 이들을 마음대로 영장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고, 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무기한 강제수용소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1974년 1월과 4월의 긴급조치의 발동을 보고 비로소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발상과 허위에 기초한 것이며, 그 체제의 폭력성이 얼마만큼 반인간적인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준 것은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은 유신헌법의 허구적 기만성과 그 폭력성을 깨닫게 한 스승인 셈이다. 지학순 주교의 구속사건은 교회 전체를 단순하게 흔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회의 현실적 단면에 대한 엄청난 깨우침을 교회에 안겨 주었다.

이것은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다. 우리에게는 정치사회 현실이 이럴 수는 없다는 본능적 거부, 인간이기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막다른 선택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사회에 대한 지나친 무지를 깨닫게 되었고, 사회교육이 전혀 부재하고 있던 한국 가톨릭 교회로서의 자기 반성과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인간적 체제와 그 체제가 빚어 놓은 극한의 상황 아래서 우리는 정치 자체를 구원해야 할 소명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성이 확립되다

일제시대의 민중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 병합된 것이었다. 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지

배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인간해방, 민족해방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민족해방의 귀결은 단순한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실현이요,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해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민족은 분열되었다. 분열과 적대를 빙자한 같은 민족에 의한 개인적 자유의 억압과 기본적 인권의 유린은 정치권력과 민중간의 팽팽한 긴장을 노정시켰다. 그러나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학생혁명이 폭발됨으로써 그 긴장의 균형이 깨졌다.

4·19는 말하자면 시민 민주주의의 형성을 위한 민주혁명이었다. 4·19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에 대한 민주세력의 승리를 말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4·19 민주혁명이 무참히 짓밟히면서 가까스로 이룩한 시민적 열망이 다시 억압당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시민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원세력을 일본의 경제적 팽창주의자에게서 찾았다. 일본의 경제적 팽창주의자들의 한국 진출을 전제로 한 이른바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것은 5·16 군사정권이 반민족적 정권임을 반영한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난지 20년만에 박정희 정권은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궤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한국 상륙을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 금액 3억 달러를 대가로 보장한 것

이다.

5·16 군사 쿠데타는 그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였다. 그 이후 1969년의 3선개헌, 1971년 박정희의 3선 출마와 비상사태 선언, 1972년의 유신정변 등으로 반민주, 독재의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때까지의 민중 저항운동은 학생과 민주적 정치세력을 주축으로 한 한일협정 반대운동, 교련반대 운동, 그리고 3선개헌 반대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민족 주체성의 확보와 민주화운동이 그 중심적인 핵을 이루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독재의 명분을 경제개발에서 찾았다. 경제성장이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과 소외 위에 이루어지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로 본격적인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적 항의운동이 뒤따르게 된다.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노동문제,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한다. 즉,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성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반정부 투쟁에 있어 노동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는가 하면, 그들 자신이 노동자가 되어 노동의 현실을 직접 체험했고,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양태는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노동쟁의에 의한 작업환경의 개선, 임금인상 등을 관철하는 것들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도 인간답게 살게 해다오’라며 최소한의 인간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기업주와 정부, 그리고 정보 수사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는 신음에 가까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70년대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당국이 노동자들의 권익운동의 씨를 말리는 정책에 대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저항사건이었다.

교회적 성찰, 소금 파는 장사꾼은 아니었는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금세기의 두드러진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것은 무려 4백여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폐쇄적 삶을 살아온 가톨릭 교회를 개방케 한 큰 뜻을 지닌다.

과도기의 교황이라 불렸던 노(老) 요한 23세는 시대의 뜻을 알라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날씨는 알아맞추면서 시대의 징표는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꾸짖으셨던 예수께서 오늘날 같은 모양으로 교회를 꾸짖고 계심을 그는 감지했다. 이런 뜻에서 요한 23세는 예견자요, 선구자였다.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다. 시대와 무관한 삶이 불가능하듯 시대와 무관한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다. 시대의 징표란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깨닫게 하는 하느님 자신의 표지이기도 하다. 사목현장의 첫 머리가 이 점을 장엄하

게 선언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신앙인의 것이며,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징표란 무엇인가? 시대란 바로 우리의 삶이며 현실이다. 시대는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전반에 걸친 삶과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 상황이다. 시대는 또한 세상 현실이다. 세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또 다른 주제어는 아쥬르나멘토(Aggiornamento)다. 매일 다가가고 매일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일상화(日常化)라 번역해 보자. 신앙과 교회의 삶은 매일 새로워져야 하며, 매일 또한 새로운 세계, 미래의 세계에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아니, 그것은 삶과 현실세상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도 된다.

복음의 비유를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 포도밭, 포도나무, 어부, 물고기, 여인, 동전, 누룩, 밀가루, 씨앗, 진주, 보화, 혼인잔치, 한밤중의 도둑, 전쟁 등 바로 일상의 삶과 일상의 사건으로 설명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과 함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것은 동시에 초월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귀중한 암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은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밀실의 조사과정에서, 법정에서,

사형장에서, 그리고 광주의 비극 그 아픔과 주검의 묘소에서 확인하고 깨달았다.

어디 그뿐인가. 삶의 현장, 이곳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며, 바로 이곳이 최후의 만찬 그 현장이었다. 그리고 엠마우스의 두 제자와 함께 빵을 나누실 때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사라지셨던 부활의 자리, 기쁨과 감격의 자리임을 또한 깨달았다. 수난과 부활은 한 짝이며 한 실체의 양면이었다.

우리는 그 부분적 실현을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였다. 광주 앞에 부끄러워야 하는 이 현실이 바로 광주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역사란 사건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역사는 거울이며 스승이다.

그러면 비극의 광주 현장에서 한국 교회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곧잘 십자가의 골고타 현장에서 서 있는 마리아와 경건한 여인들, 그리고 사도요한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도망친 사도들을 부끄럽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광주의 십자가 앞에서 신앙인인 우리는 어떠했는가? 막달라의 마리아는 이른 새벽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장엄하게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광주로 달려갔는가? 바로 80년의 그 아픔을 외면했던 우리가 과연 오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가?

“나자렛에서 뭐 신기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복음에 언급된 지역 차별성의 표현이다. 세례란 온갖 차별을 타파함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타파함이다.(갈라 3:28 참조)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지역 차별

이 유효하니 이 점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참으로 고민스러운 현상이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교회의 아쵸르나멘토, 그것은 이런 현실에 뛰어들도록 재촉하는 표시다. 이와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목적·인간적·종말론적 교회의 자세를 강조했고, 무엇보다도 세상 한가운데에서의 교회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그 민족문화 안에 스며들고 뿌리내려야 할 재강생과 토착화의 임무를 깨우쳐 주었으며, 성신 안에 이루어질 다양성을 통한 일치성도 확인케 했다.

그 동안 우리는 자연과 은총의 조화를 넘어 합일예까지 다가갔으며, 역사의 현장 바로 이곳이 성서의 원천, 계시의 자리임도 확인했다. 엄청난 신학적 이해였다. 그러나 사제단 20주년 기념회의 초청강연에서 유대인 신학자 M. Ellis는 우리에게 엄청난 물음을 던졌다.

그는 우리 사제들이 그 동안 과연 민중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뛰었는지, 그렇다면 그 증언과 투신으로 과연 얼마만큼 민중의 자유와 해방이 이룩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또한 우리 사제들이 과연 예수가 걸어간 길을 철저하게 걸어갔는지, 예수가 당시 제도적 유대 종교를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섰듯이 오늘의 제도적 교회와 그 한계를 과연 사제들이 넘어설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역사적 복음의 옷을 껴입은 오늘의 그리스도교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 아닐까? 과연 사제들의 투신과

봉사로 득을 본 것은 누구인가? 민중인가, 아니면 자기 보호와 호교에 급급한 비판되고 쇠신되어야 할 제도적 교회를 오히려 살찌게 한 모순을 범하지는 않았는가를 그는 물었다.

솔직히 우리는 M. Ellis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는 감히 접근치 못했다. 우리는 소박한 마음으로 제도와 관행이 일정하게 금 그어놓은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충실한 삶을 다짐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고민 앞에 서게 되었다. 과연 교회 쇠신이란 무엇이고, 예수께서 유다 종교를 무섭게 질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제도교회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이다. 민중과 함께 하는 교회의 도착화와 재강생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20여년이 지난 오늘 사제단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로 이 물음 앞에서 있다. 이 물음 앞에서 있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문헌을 통해 되살펴본다. 그 말에 늘 행동이 함께 했었는가를 거듭 성찰하고자 한다. 예수께서는 분명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고작 소금을 파는 장사꾼은 아니었는지 더욱 깊이 반성하고자 한다.

배반자 유다를 벗이라 부르셨던 예수님

배반자 베드로를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기도를 바치셨던 예수님

참으로 진지했던 그날의 미사
그 감격을 되새기며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한복판에서 투신의 삶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노와 당신의 용서
당신의 사랑을 함께 그려봅니다.

이 민족을 구하소서. 아멘.